

직장인 일상회화 완전정복 1단계

- 영어가 쉬워지는 회화 기초패턴편

Script

리스닝 인트로

문제를 듣고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세요.

Why are you still in the office?

- A. Because, I like noise.
- B. I'm about to leave the office.
- C. It's not far from here.

왜 아직 사무실에 계시죠?

- A. 저는 소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.
- B. 이제 막 사무실을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.
- C.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.

[이 과의 학습목표]

1. I'm about to + 동사원형 의 문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.
2. 오늘의 문장: "I'm about to leave the office!"

강의 보기 - Main Dialogue

Lisa: Why are you still in the office?

Lisa: 왜 아직 사무실에 있어요?

Young: I'm about to leave the office.

Young: 이제 막 사무실을 나가려던 참이었어요.

Lisa: How was your first day of work?

Lisa: 여기서의 첫 근무 어땠어요?

Young: It was so great! Thank you.

Young: 아주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
강의 보기 - Small Talk

☞ Young은 고객에게 중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게 되어있었다. 하지만 약간 지체했는지 여지 없이 사무실로 독촉하는 전화가 온다.

Dialogue - 1

Lisa: I didn't receive the paper yet.

(Lisa: 아직 서류를 받지 못했어요.)

Young: I'm about to send it to you.

(Young: 이제 막 당신께 보내려던 참이었어요.)

☞ Young은 오늘 술자리에 갔다가 늦게 들어오게 되었다. 왜 전화도 안받고 안 해주었냐는 아내의 핀잔에 Young은 후끈 달아오른 얼굴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.

Dialogue - 2

Lisa: Why didn't you call me?

(Lisa: 왜 제게 전화를 해주지 않으셨어요?)

Young: I'm about to tell you.

(Young: 이제 막 말하려던 참이었어.)

☞ Young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긋지긋한 모양이다.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도 매우 신경이 쓰인다.

Dialogue - 3

Young: Oh, terrible! I'm about to leave this town.

(Young: 아, 지긋지긋해! 이 마을을 떠나야겠어.)

Lisa: Come on, honey.

(Lisa: 진정해요. 여보.)

One more Tip!

'I'm about to + 동사' 의 줄임말은?

오늘의 패턴은 'I'm about to 뭐뭐뭐~.'

동사를 빼고 'I'm about to ' 까지만 말해도 됩니다.

배고파 리사! 밥 사준다고 했잖아. 빨리 해장국 먹으러 가자!

Okay! I'm about to !!

Okay! I'm about to tell you!!